

김윤경숙
Kim Yun Kyungsook

EDUCATION
목원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SOLO EXHIBITION
2014 «하얀 비명», 성곡미술관, 서울
2012 «망상의 침묵», 테이크아웃드로잉, 서울
2011 «The Isle of Jaehang_Ubiquity»,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2009 «The stream of time», 광주대인시장프로젝트
약 15년간 빈 마용실 공간, 광주
2007 «수상한 네 개의 진술» 전 기획, 스페이스몸 미술관, 청주
2003 «스페이스몸 미술관», 청주
2001 «미디어-미래어» 전 기획, 시민회관 대전
2000 한림갤러리 대전

GROUP EXHIBITION
2024 «범람», 용촌동 정병아마을 예술프로젝트, 대전
2019 «퇴적된 유령들», 청주시립대청호미술관, 청주
2017 «키워드 한국미술 2017:광장예술-햇불에서 촛불로»,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2016 «도큐멘트 10년의 흔적, 10년의 미래»,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2015 «트라우마의 기록», 아람미술관, 경기도 고양
2012 «하정웅청년작가초대전»,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2011 «미술은 현실이다», space ssee 대전
«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 조율전_2013을 추적하면서»,
한국이민사박물관 인천 율미도
«DOCUMENT + A 2011 cheongju Space Odyssey»,
청주연초제조창 창고
«평화박물관 기금 마련 기획전_평화가 웃는다.», 평화박물관, 서울
1993 «93 서울 한국화 비엔날레»,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외 다수 참여

RESIDENCIES
2012 레지던시 테이크아웃드로잉 입주 작가
2011-2012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
2009 대인예술시장 프로젝트 레지던시 입주 작가

AWARDS
2013 성곡미술관 내일의 작가 선정
2012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청년작가상

박운화
Park Woonhwa

EDUCATION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졸업

SOLO EXHIBITION
2021 «박운화 展», 대전도시공사 전시실 기획초대전, 대전
2020 «채집일기», 화니 갤러리, 대전
2019 «서랍 속 이야기들», Art&Art 갤러리 초대전, 대전
2018 «오래된 사산», 화니갤러리 초대전, 대전
2015 «Monologue», H 갤러리 초대전, 청주
2010 «날아오르는 꿈», 한밭 도서관 갤러리, 대전
2009 «내 안의 풍경, 책 속의 풍경», 한밭 도서관 갤러리, 대전

GROUP EXHIBITION
2024 «대전-난징 자매결연 30주년 미술교류전», 유원 갤러리, 대전
«2024 대한민국 창조미술-유명작가 초대전»,
부산시민회관 전시실, 부산
«작음과 커다란 세계의 판 展/전국판화가협회교류전»,
우연 갤러리, 대전
«Printmaking, Switch of Senses/46번가 판화가회»,
우연 갤러리, 대전
2023 «2023 대전미술제», 대전예술가의 집 전시실, 대전
«Printmaking Slowoori/2023 대전판화가협회», 우연 갤러리, 대전
«Printmaking-Reading/46번가 판화가회», 윤 갤러리, 대전
«2023 울산 아시아 판화제», 울산문화예술회관, 울산
2022 «2022 대전미술제», 대전예술가의 집 전시실, 대전
«그림, 정원/갤러리 메르헨 기획초대전», 갤러리 메르헨, 대전
«2022 한국수자원공사-4인 부스개인전»,
한국수자원공사 전시실, 대전
«대전현대판화미술제/전국판화가협회교류전», 우연 갤러리, 대전
«2022 군산 아트쇼», 새만금컨벤션센터, 군산
«2022 울산 아시아 판화제», 울산문화예술회관, 울산

RESIDENCIES
2017 관련판화공방, 중국, 선전

AWARDS
2020 제18회 이동훈미술상 특별상

LEEUNGNO MUSEUM

Solitude;
One Door Opens as
Another Door Closes

문 이

달

고 독 ;

고 ,

문 이

달

고 ,

문 이

관람시간
10:00 a.m. – 7:00 p.m.
※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도슨트
평일(화 - 금) 14시 / 16시 운영
주말(토, 일) 11시 / 14시 / 16시 운영
(30분 내외 진행되며, 별도의 예약 없이 현장 참여 가능)
※ 미술관 휴관일, 월요일, 설, 추석연휴 등 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무료 관람)

35204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57
Tel. 042)611-9800
Fax. 042)611-9819
Homepage. www.leeungnomuseum.or.kr

고 독 ;

LEEUNGNO MUSEUM

Solitude;
One Door Opens as
Another Door Closes

문 이

달

고 독 ;

고 ,

문 이

달

고 ,

2025 이응노미술관 기획전 | 2025 Leeungno Museum Special Exhibition

2025. 4. 22.TUE - 6. 1.SUN

김명주
Kim Myungjoo

EDUCATION
MFA École Nationale Supérieure des Arts Visuels de La Cambre,
도자, 공간과 시각, 조형예술학 석사, 브뤼셀, 벨기에
BFA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도예과 학사, 서울, 한국

SOLO EXHIBITION
2024 «Transitions» Kunstforum Solothurn, 졸로투른, 스위스
«무한의 가장자리에서» P21, 서울, 한국
2023 «Subito p - Immersion» The One Piece of Art, ARTBN, 서울, 한국
«정화된 밤» Hori Artspace, 서울, 한국
2022 «기쁨의 거울» Salle Basse de la Crypte Rostropovitch, 보베, 프랑스
«EOLGUL-Visages» Vazieux Art Gallery, 파리, 프랑스
«영혼의 흙» Kunstforum Solothurn, 졸로투른, 스위스

GROUP EXHIBITION
2025 «Eyes Reflecting The World: Works from Mr. Jinyoung Kim Collection» 뉴스프링프로젝트, 서울, 한국
2024 «Liberté conditionnelle I», Ariana 미술관, 제네바, 스위스
«내가 사랑을 주지 않았다면 II», Kunstforum Solothürn,
졸로투른, 스위스
«TRACES AND THREADS», 피닉 서울, 한국
«Wonderful!Colorful!», Ter Dift 문화센터, 보르넬, 벨기에
«In Constant Change I», Kunstforum Solothurn, 졸로투른, 스위스
2023 «Sillon-Itinéraire-Art-Drôme», Le Port cloche, 루시보댕, 프랑스
«Gisèle Buthod-Garçon Résonances», Galerie Terra Viva,
생랑탱 라포르트, 프랑스
«FUNDUS», Kunstforum Solothurn, 졸로투른, 스위스
2022-23 «친숙한 기이한», 부산현대미술관, 부산, 한국
2022 «Migrations», Ariana 미술관, 제네바, 스위스

RESIDENCIES
2022 세라믹 레지던시 - l'école d'art du Beauvaisis, 보베, 프랑스
2019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6기 입주작가, 대전, 한국
2015-2016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세라믹창작센터, 김해, 한국
2014 ArctiClay 심포지엄(4회), 포지오, 핀란드
2010 A.I.R, Vallauris(발로리스), 프랑스
2008 도예의 숲, Shigaraki(시가라키), 일본

AWARDS
2021 Fund for Korean Art Abroad 2021-2022, Korea Arts Management Service(KAMS), 한국
2014 First Prize(대상-심사위원상), C14 - PARIS, 파리 현대미술 도예 살롱전, 파리, 프랑스
2014 로레아트상 «Les Coups de Coeur des Amis de la Cambre»
브뤼셀, 벨기에
2013 아리아나 뮤지엄상, ARIANA 뮤지엄, 제네바, 스위스
2009 Public Award(관객상), C14 - PARIS, 파리 현대미술 도예 살롱전,
파리, 프랑스
2009 은상, TERRALHA 유럽 도예 페스티벌 공모전(St Quentin la Poterie, 프랑스)

김병진
Kim Byungjin

EDUCATION
한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 졸업

SOLO EXHIBITION
2024 개인전(갤러리프리즘/계룡)
개인전(갤러리메르헨/대전)
개인전(아트가가/서울)
2023 개인전(갤러리메르헨/대전)
초대개인전(갤러리프리즘/계룡)
초대개인전(비너스갤러리/서울)
초대개인전(메아트갤러리/서울)
초대개인전(갤러리고트빈TJB/대전)
2022 개인전(갤러리고트빈TJB/대전)
2021 초대개인전(갤러리고트빈TJB/대전)
개인전(갤러리아트엔아트B/대전)
2020 개인전(갤러리고트빈TJB/대전)
초대개인전(대전갤러리/정명희미술관)
그 외 36회

GROUP EXHIBITION
2024 대전국제예술제(예술가의 집/대전)
2023 한-중 명가전(대전시청/대전)
2015 도시와 도시사이전(글루가우AIR스페이스 갤러리/베를린)
2013 한-몽 교류전(울란바토르/몽골)
한-불 교류전(몽플뢰르/프랑스)
2011 심함택전(시카고 보타닉가든/미국)
파리 폰테프 국제미술교류전(Galerie Pont des Art/프랑스)
2010 일-한-중 현대수묵화전(삿포로/일본)
2006 중-한 현대미술 교류전(하얼빈 사범대학/중국)
3국3색전(이루크츠크/러시아)
2001 Japan. Korea Fine Art Exhibition in SAITAMA 2001
(사이타마/일본)
2000 Fine Art Exhibition in Tokyo(도쿄 신정갤러리/일본)
1999 KOREA JAPAN전(송파갤러리/서울)

김명주
Kim Myungjoo

김명주는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를 거쳐 현재는 한국까지 두 대륙을 오가며 도자조형, 회화, 드로잉 등 다양한 매체의 경계를 허물고 작품세계를 확장하고 있다. 김명주의 작품은 몽환적이고 고통스러우며 시작하면서도 내용과 형식, 기법에서 다채로운 서사를 보여준다. 그러나 무엇보다 조형적 요소에 중심을 두고 있다. 독특한 도자조각은 반추상의 형상으로, 덩어리감이 뚜렷한 점토로 빚어지고, 고온에서 구워져 깊은 발색과 두껍게 발라진 유약이 흘러내리며 신비로운 생명력을 부여한다. 작품은 식물과 인간의 결합 또는 흐르는 흐름 그 자체가 표정이 되는 얼굴을 형상화한다.

김명주는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해 혼란과 환희를 아우르는 모호한 감정을 전달하며, 생명의 에너지와 신비한 영역을 흠을 통해 형상화한다. 작가의 작품은 유약을 반복적으로 발라 고온에서 소성하는 과정을 통해 색을 입히고, 이를 통해 회화적 감각과 촉각적 경험을 더한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작품 속 얼굴들은 인간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성찰적 장면들로, 작가의 내면과 개인적 경험을 반영한다. 김명주는 상상하거나 붙잡을 수 없는 신비로운 실체를 묘사하는 대신, 그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을 포착한다.



Tête pensive_XI (생각에 잠긴 두상 XI)
31×34×49cm, Glazed Stoneware, 2023

Kim Myungjoo, who began her career in France, Belgium and Switzerland, is building an artistic world that blurs medium-dividing boundaries while moving regularly back and forth between Europe and Korea. Her creations—ethereal, infused with pain, and poetic—offer diverse narratives in terms of content, format and technique but focus most on plasticity. Her unique clay sculptures are semi-abstract figures made from a heavy clay that are richly colorful due to having been baked at a high temperature. The layers of glaze, which have been allowed to drip down, give them a mystical appearance. The majority of Kim’s creations have a body that is a blend of human and plant and a face whose expression is nothing but flowing glaze.

Kim begins with questions about the fundamental entities that motivate human behavior. Striving to convey the vagueness of joy and confusion as naturally as possible, she uses clay to express the energy of life and various mystical realms. One interesting aspect of Kim’s three-dimensional work is how she repeats the process of applying glaze to the surface and then baking the figures at a high temperature to give them the appearance of a painting as well as creating a tactile sensuality. The faces are introspections of the essence of human existence that reflect Kim’s inner world and personal experiences. Instead of depicting mystical entities that cannot be fathomed or grasped, Kim captures the moment that its true nature is revealed.



어둠 속을 뚫고 가는 마음의 빛
130.3×193.9cm
Mixed Media
2018

김병진
Kim Byungjin

김병진의 작품은 전쟁으로 발생한 대학살과 잔혹함을 고발하며, “전쟁을 중지하라”는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비교적 평화로운 듯 보이지만, 여전히 분쟁 지역에서 계속되는 희생과 인권 유린을 직시하며, 그는 전쟁이 남긴 상흔을 기록하고자 한다. 그의 작업은 과거 사건뿐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분쟁의 반복되는 고통을 경고하는 의미도 지닌다.

작업은 주로 먹(ink)을 사용하며, 붓으로 화면을 거칠게 칠하거나 뿌리고, 긁어내거나 뜯어내며 강렬한 질감과 밀집된 형상을 만들어 낸다. 숫자와 문자를 반복적으로 배치하여 전쟁의 혼란스러운 상흔을 시각적으로 기록하고, 이를 통해 전쟁의 잔혹함과 인간의 고통을 관객에게 절박하게 전달한다.

특히 2019년 이후 작품에서 각 지장은 한 명의 인간을 상징하며, 작은 공간에 반복적으로 찍어 넣어 개인의 삶과 희생을 나타낸다. 이는 독립된 인류의 역사이자 생과 사의 기록이며, 단순한 조형물이 아닌 평화를 위한 수목조형언어로 남긴 서명이다. 그는 작품을 통해 전쟁이 남긴 흔적을 환기하고 관객이 평화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도록 이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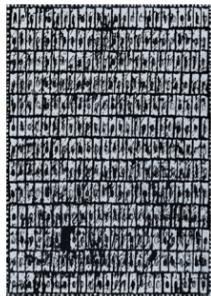


LOVE LOVE LOVE No. H-24081, 100×70cm, Ink and paper on canvas, 2024

Kim Byungjin’s works denounce the cruelty of war-caused massacres, exhorting us to end all war. We may seem to be living relatively peacefully since the end of World War II, but conflict zones remain all over the world, where there is constant loss of human life and human rights. Kim’s work is important because it deals with war, not as something confined to the past, but as something that continues to cause pain.

Much of Kim’s work is done in India ink. He repeatedly moves the brush over the canvas or uses it to spray the canvas with ink, creating a layered texture and packed-in repetitiveness that are not easily forgotten. Through tiny horizontal rows of numbers and letters that fill the canvas, Kim creates a physical record of war’s ravages and forces the viewer to feel its cruelty and pointlessness.

Kim’s paintings since 2019 feature many thumbprints, each of which represents one person. The display of row upon row of these evenly-spaced thumbprints in a limited space brings our attention to the loss of each of these unique lives. In addition to having the appearance of an ancient historical record, each painting is a collection of signatures for peace. By reviving memories of the scars of war, his works allow us to experience its horrors and, in contrast, recognize the value of peace.



LOVE LOVE LOVE No. H-24034
100×70cm
Ink and paper on canvas
2024



LOVE LOVE LOVE No. H-16016
100×70cm
Ink and paper on canvas
2016

김윤경숙
Kim Yun Kyungsook

김윤경숙은 개인의 기억을 객관적 사건에 투영해 천안함 침몰, 세월호 참사 같은 비극적 사건에서 비롯된 트라우마와 생존자의 이야기를 작품으로 풀어낸다. 김윤경숙은 일회성 오브제와 약한 비닐 테이프, 특히 피를 연상시키는 빨간색 테이프를 사용해 공간을 변형시키는 설치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 빨간색은 작가가 어린 시절 목격한 처참한 사건의 감정적 잔해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것으로, 관객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김윤경숙의 작품은 관객에게 ‘생존자 되기’의 경험을 제공하며, 트라우마를 예술적 사유와 발언으로 확장한다. 김윤경숙은 이번 전시에서 ‘왜 어두운 역사가 되풀이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과거의 사건이 현재에 미치는 영향력을 강조한다. 작가는 이전 작품에서 사용했던 붉은 테이프를 뜯어내는 방식의 덩어리들과 약 1,000개의 전구를 배치해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나는 연대의 순간을 형상화한다.

김윤경숙의 작업은 연대와 저항의 예술적 발언을 강화하며, 관객에게 깊은 성찰을 유도한다. 작가의 작품은 과거의 아픔을 되새기는 과정을 넘어 우리가 공유하는 감정과 경험을 연결하고, 미래의 희망과 MZ세대가 보여준 공동체의 힘을 제시한다.



하얀 비명, 혼합재료, 가변설치, 2014



망상의 침몰, Dimension Variable Mixed Media, 가변설치, 2012

Kim Yun Kyungsook explores her personal memories to depict the trauma and survivors’ stories of historical incidents that resulted in death (e.g. the sinking of the *ROKS Cheonan* and the *Sewol* ferry). Her best-known installations, made with disposable materials, feature large swaths of red, blood-like tape. These red visualizations—which often include both translucent and opaque reds—of the emotional debris left behind by tragic events Kim witnessed as a child make a strong impression.

Kim’s creations give viewers a “survivor” experience, showing us the process by which private trauma can be expanded into an artistic statement. For this exhibition, Kim asks why mistakes that involve the loss of life repeat so frequently, stressing the ongoing impact of past wounds that have been left untreated. She also visualizes, through an installation of approximately 1,000 lightbulbs and by ripping away red tape (instead of applying it, as for previous exhibitions), moments of solidarity that shine faintly amid a seemingly infinite repetition of preventable disast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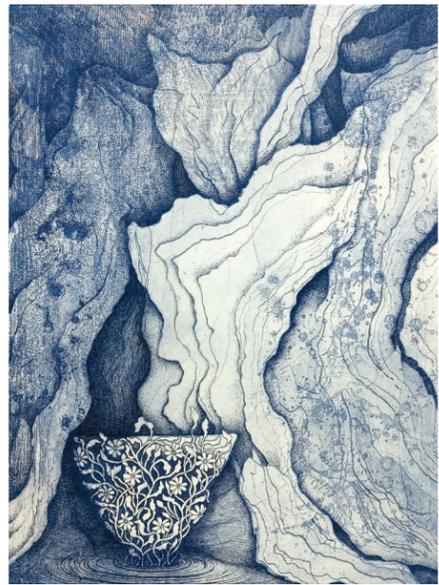
Kim’s creations consistently voice the need for dissent via solidarity regarding social phenomena and encourage the viewer to think deeply about things they may have overlooked. Above all, they are not a regurgitation of past wounds. Rather, they show us that we are very much interconnected amid the worst of events and that there is hope in the communities being created by Gen MZ to combat today’s social insensitivity to individual pain.

박운화
Park Woonhwa

박운화의 작업은 개인의 소소한 감정과 일상적 경험에서 시작된다. 박운화는 작가노트에서 “내가 그림을 그리는 것은 혼잣말을 하는 것이다. 오래전 기억 속에 접어 두었던 소소한 일상들, 한때 내 모습이었던 낯은 사물들이 낮게 이야기하며 화면에 자리 잡는다(Monologue, 2015년). 내가 담아낸 것들은 나를 둘러싼 사물과 일상이다(채집일기, 2020년)”라고 서술했다. 박운화의 판화 작업은 개인의 일상과 기억, 존재에 관한 깊은 탐구이며, 관객에게 내면의 소리까지 전달하려 한다.

박운화의 작품은 일상과 기억을 소재로 하지만, 표현 방식에서 상상과 현실, 꿈과 현실이 교차하는 공상적이고 몽환적인 여운을 남긴다. 박운화는 평범한 소재 속에 심오한 이야기를 담아 마치 일기처럼 풀어내며, 숨겨진 감정을 시각화하여 관객에게 공감할 유도를 한다.

박운화의 판화는 음악처럼 부수적 장치 없이도 작품 자체만으로 감동과 여운을 준다. 작품을 분석하거나 해석하지 않아도 관객에게 깊은 인상을 주며, 감정과 기억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구현해 소통을 이끈다. 박운화에게 예술은 ‘놀이’이자 순수한 행복의 추구이지만, 단순한 유희가 아니라 숨겨진 이야기를 창조적 방식으로 전달하려는 진지한 창조적 행위다.



아간, 40×30cm, Etching, Aquatint, Coffee-Lift, Chine-Colle, Collage, 2025

Park Woonhwa’s creations are based on the individual’s day-to-day emotions and experiences, as she explains in Artist’s Notes for various exhibitions (“When I create, I am essentially talking to myself. Everyday moments long since relegated to the back of my mind and old objects that once represented who I was start to talk, eventually filling the canvas.” (*Monologue*, 2015)/ “The things I depict are objects and events from my everyday environment.” (*Collector’s Diary*, 2020)). Her prints are an exploration of an individual’s daily life, memories and existence and convey to the viewer snippets of her inner world.

Park turns mundane subject matter into unusual amalgams of imagination, dreams and reality, skillfully mixing in fantastic elements to create an otherworldly atmosphere. She attaches a profound story to an everyday object and then presents it as if it were a secret diary entry, thereby encouraging the viewer to empathize with the ensuing emotions that she has discreetly visualized.

Park’s prints, like music, resonate profoundly in and of themselves, without having to undergo analysis or academic interpretation. Their goal is simple: to give physical shape to memories and emotions in order to communicate with the viewer. For her, art is similar to play and is a quest for simple joy. Her creations are a truly creative endeavor in which she seeks, in unique ways, to communicate hidden stories to the viewer.



책상 위의 기억, 38×60×2cm, Etching, Aquatint, Coffee-Lift, Chine-Colle, 2020